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월간자산운용보고서

(준법감시인심사필2010-49호)

마이다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 2010년 01월

Fund Facts

투자 목적	현물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현재 주가보다 높은 행사가격의 콜옵션을 매도하여 얻는 옵션프리미엄을 축적하여 주가하락위험을 줄이면서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운용개시일	2002-04-19
펀드 규모	817 억원
총보수	A1-선취1%+연1.24% /C1- 연2.49%
환매수수료	A1-없음 / C1-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펀드운용실적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	-4.41%	2.05%	9.57%	45.44%	178.61%
참고지표	-3.48%	1.35%	2.81%	29.73%	65.79%
초과수익률	-0.93%	0.70%	6.76%	15.71%	112.82%

※참고지표:KOSPI변동률*75%+CD금리*25%

※펀드 기준가 및 수익률은 Class A1 기준임.

수익률 추이

(2002.04.19~2010.01.29)

펀드매니저 리포트

지난 1월 한 달간 펀드 수익률은 -4.41%였으며 동기간 참고지표는 -3.48%를 기록하여 펀드는 참고지표대비 부진한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달은 자산배분 보다는 순환매 참여에 따른 추가이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성과가 양호했던 통신, 전기가스, 운수창고, 기계, 조선업종 비중이 낮았고, 높은 비중을 유지하던 보험, 건설, 철강업종 등이 부진한 성과를 기록한 것이 부진한 요인이었습니다.

주식 시황 및 자산배분

지난 1월 주식시장은 그 동안의 안정된 실적, 양호한 거시경제지표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하여 1월 중반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월 중순에 중국 정부 지준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유동성 축소 리스크가 이슈화 되었으며, 이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월가에 대한 규제를 표명하며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주식시장은 1월말 종합주가지수 1,602pt에서 마감 하였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외국인의 아시아 이머징 펀드 관련 흐름은 순유입을 유지 하였으며, 국내 펀드는 종합주가지수 1,650pt를 기준으로 하회시 순유입,초과시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업종에 관해서는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며, 베타가 낮은 통신업종과 유틸리티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 하였습니다. 반면 그 동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왔던 건설, 철강업종은 시장 대비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인 한 달이었습니다. 현재 펀드에서 주식편입비율은 90% 내외로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종목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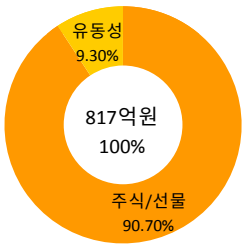
포트폴리오 중에서 업종별 성과를 보면 통신, 전기가스, 운수창고, 기계, 조선업종 등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견조하였고 보험,건설, 철강 업종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KT, 한진해운, 한국전력, 멜파스, 메리츠화재, 두산인프라코어, 대우인터내셔날, 동부화재, 대한항공, 삼성물산, CJ제일제당 등의 투자실적이 좋았던 반면, 넥센타이어, OCI, GS건설, LS, 고려아연, 삼성테크윈, KB금융, 글로비스, 현대모비스, LS, 아모레퍼시픽, POSCO, LG화학 등의 투자실적은 저조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주요변경 내용은 SKT, 현대중공업, 외환은행, 동국S&C, CJ, 남해화학, 대림산업, 멜파스, 중국원양자원 등을 신규편입하고 롯데쇼핑, 신세계, NHN, 한솔LCD, 웅진코웨이, 네오위즈게임즈, 서울반도체 등을 제외하였습니다.

커버드콜 전략

주가하락 위험을 줄이고 추가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투자와 함께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월 만기 옵션은 227.5에 매도 하였으며 1월 옵션 만기일 KOSPI200지수가 221.19로 종료됨에 따라 매도 콜옵션은 행사되지 않고 옵션 프리미엄 수입을 펀드수익으로 실현하였습니다. 2월물 콜옵션은 행사가 232.5를 매도하였습니다. 1월 말 현재 매도한 콜옵션에서 현재 이익을 보고 있으나 2월 만기일까지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손익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2010.01.31 기준]



상위보유종목

[2009.11.30 기준]
(순자산총액 비중 45.24%)

삼성전자	14.11
현대차	8.07
POSCO	5.35
하이닉스	3.39
한국전력	2.78
LG디스플레이	2.67
LG화학	2.30
SK텔레콤	2.23
KB금융	2.18
KT	2.17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본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진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